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다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골로새서 1:24-29]

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오늘 아침 설교본문에서 비밀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감추어진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신비는 구약성경에서 잠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약성경 없이 이것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숙해지는 그날까지 담대함을 갖고 믿음에서 자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바울 그리고 비밀의 선포: 바울은 24절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받은 고난에 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신이 받는 고난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함이란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즉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에—대한 유일한 권위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충분한 삶에 관한 거짓된 다른 주장들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그리스도 그리고 비밀의 드러냄: 아마도 여러분은 왜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성경에 숨겨져 있어 그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 살짝 엿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런 생각을 잘 표현해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 목적, 미래 그리고 희망의 중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게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3, 우리들 그리고 비밀의 목표: 오늘 설교본문 28-2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자신의 임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임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 완전히 향해 있습니다. 이 성숙은 언젠가 완성될 것이며 또 영원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전념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정된 삶이 아니란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여행과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숙해지는 것에 관해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수고하고 항상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목표와 소망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점점 더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속 갈망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문장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의 성숙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